▶▶ 매일 INDEX

2면
신임 주광주 중국총영사, 전북 방문


# 전주매일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음 1월 26일) 제345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공백최소화를 위한 전북자치도-종합병원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한 도내 14개 병원장들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기관별 진료공백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 도내 의료공백 최소화 모색

### 전북자치도, 전북대병원 등 도내 종합병원들과 간담회
### 도민 불편 최소화 위한 비상진료대책 의견 주고받아

전북특별자치도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내 종합병원들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5일 오전 10시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 등 도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13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의료기관별 현장상황을 전해 듣고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속에서도 환자 치료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도내 3개의 수련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예수병원 의료진에 대해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또한, 도민들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진료시간을 확대해 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병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는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부터 최근 의료계 동향 및 전북자치도 대응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각 병원장들로부터 기관별 현장상황 청취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병원에서 중증과 응급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종합병원에서 진료가능한 내원환자를 적극 진료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힘든 여건이지만 도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과 수고를 다해 주시는 병원장과 의료진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고질적인 농촌 문제 해결해야

### 전북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 2015년 19명에서 올 상반기 4만9286명으로 급증
### 지속가능 제도 운영 위해 관련 법 제정 등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5·사진)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극심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농업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주무부처이며 실질적인 운영·관리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5년 19명에서 2023년 3만 9,657명, 2024년 상반기 4만9,286명으로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이처럼 양적 팽창세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최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한 법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농촌지역 인력수급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시·군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관리를 비롯해 교육, 인력관리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열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은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어촌 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도내 의과대학, 의대 증원 대폭 올려 신청

### 전북대 98 · 원광대 93명
### 의대 교수 · 학생들 '반발'

전북특별자치도내 의과대학들이 의대정원 증원을 대폭 올려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의대생 집단휴학에 이어 교수들도 보직 사임을 해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전북대학교는 98명의 의대정원 확대를 신청했다. 현재 전북대 의대정원은 142명이다. 98명의 정원이 확대될 경우 총 240명의 의대정원을 확보하게 된다.

원광대학교의 경우도 93명 증원을 신청했다. 현 93명 정원에 100% 추가 정원을 신청한 셈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다른 대학과 달리 현실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증원 규모를 책정했다"며 "증원에 맞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교수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원광대의 경우 의과대학장 등 5명의 교수가 보직사임을 했다. 전북 의대생 1142명 중 1099명은 휴학계를 냈다. 학교별로는 전북대 669명 중 646명, 원광대 473명 중 45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대 의대의 경우 3주간, 원광대 의대의 경우 1주간 휴강 형태로 개강을 연기했다. /뉴시스

진안 마이산(사진 왼쪽)과 무주 적상산 천일폭포.

## 진안 · 무주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획득

###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서 최종 의결… 생태관광 활성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9차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인증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은 총면적 1,154.62㎢(진안 613.98, 무주 540.64)로써 총 10곳의 지질명소가 분포돼 있다.

마이산(진안)·외구천동(무주) 등 우수 지질명소를 보유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은 국가 브랜드를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재인증으로 연간 1억원의 국비 운영비가 지원되며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 등 관련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으로, 지질공원 홍보와 주변 마을 협력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질 생태교육 등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지질공원 완성도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에코캠핑 삼천리길 등 생태관광지와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 개발·운영도 추진한다. /김재훈 기자